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현재 지역 청년 고용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서, 취업 성과 중심의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의 구직단념과 노동시장 이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취업 실패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일상의 리듬을 잃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최근 청년정책은 취업 이후의 성과 관리보다 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일상 유지와 구직의욕 회복, 정책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구직 단념과 이른바 ‘쉬었음’ 상태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프로그램·청년정책 연계로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고용서비스의 사후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변화 과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 지자체로 참여해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

지역 청년 일상·성장 잇는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하고 있으며,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대에서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이하 상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무센터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점 공간으로, 지역 대학이 축적해 온 교육 경험과 현장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이 일상과 사회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과 프로그램, 정책 연계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기반 체계도 함께 강화해 왔다. 센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정비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연계해 청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센터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센터와 청년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상무센터는 확고한 교육 제공에서 벗어나, 청년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부터 일정 기간 자신의 진로와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형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마련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은 물론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을 돕는 활동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상담을 통해 파악한 청년의 욕구와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청년이 정해진 경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

그램 참여를 단발성 경험에 그치지 않게 하며, 상담과 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참여 구조를 만들어 간다.

센터 내부에서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상담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용정책의 변화 흐름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상무센터는 청년이 다양한 고용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기능을 강화해 왔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 설명회와 현장 연계를 통해 정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은 단기간의 취업 성과를 목표로 한 접근이 아니라, 청년의 변화 과정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상무센터의 공간, 상담, 프로그램, 정책 연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운영방식은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는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최우수’ 등급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6년에도 상무센터는 청년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응답하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청년의 일상과 진로, 사회로의 재진입 과정 전반을 함께 고민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상무센터가 됐으면 한다.

의료칼럼



곽 희 호

목포청년한방병원장

다리가 저리고 아픈 이른바 ‘하지저림’ 환자들을 임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저림이라는 불쾌감은 주로 신경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하며 체내의 신경을 모두 합치면 총 길이가 몇 만 킬로미터가 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가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허리디스크와 자주 혼동되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상근은 엉덩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근육이다. 엉치뼈에서 시작해 고관절을 지나 허벅지뼈에 붙는 근육으로 고관절을 바깥 혹은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에 관여하며 고관절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허리에서 이어지는 척수신경이 엉치에서 갈라져 좌골신경을 통해 다리로 내려가는데, 이 좌골신경이 이상근의 아래로 지나가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다. 불량한 자세, 과도한 활동, 골반의 변위 등으로 인해 이상근이 과긴장돼 단

허리디스크처럼 다리가 저리는 ‘이상근 증후군’

축 또는 신장되면 근육 아래에 위치한 좌골신경을 압박하는데 이를 ‘이상근 증후군’이라 부른다.

증상은 이상근 자체의 문제로 인해 둔부의 통증을 보이며, 압박된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경로를 따라 하지저림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허리디스크와 혼동하기 쉽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FAIR test’라는 이학적 검사로, 환자는 환측 다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옆으로 눕는다. 이 자세에서 환측 다리의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60도 굽혀 올린다. 검사자는 한 손으로 환자의 골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환측 무릎을 잡아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는데 이때 통증이 나타나면 이상근에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이상근 증후군은 특히 허리디스크와의 감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발목 아래까지 저림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허리디스크는 하지의 감각 변화나 근력이 약화가 생기는 반면에 이상근 증후군은 그렇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이상근 증후군은 상기했듯이 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치료시 호전도를 판단하는 진단적 치료를 행하기도 한다.

질병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어서 비수술치료가 권장된다. 그 중 근육과 신경에 직

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침구치료가 효과적이다. 치료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혈위는 ‘환도(環跳)’이다. 환도혈은 엉치뼈에서 허벅지뼈의 큰돌기용기에 선을 그어 3등분을 했을 때 바깥에서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다. 환도혈의 혈위 자체가 이상근 위에 있어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침치료는 도침과 약침을 주로 시술한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피부에서 5cm 정도 깊숙하게 위치하므로 초음파 유도하에 침구치료를 시술하는 것이 정확성과 안전성에서 권장된다. 도침치료는 유착된 근육을 절개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미세자극을 통해 혈류순환을 유도하여 만성으로 굳은 근육을 치료한다. 또한 침을 더 깊숙히 자입해 좌골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도 있다. 약침은 어혈을 풀어주고 신경염증을 억제해주는 한약재를 주입해 직접 주입하는 치료로 신경통을 동반한 경우에 좋다.

생활관리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등의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동작은 삼가야 한다. 평소에도 고관절과 둔부쪽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다.

신경의 특성 상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불편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치료는 가능하기에 절대 지지치 않고 꾸준한 치료를 받길 권한다.

독자투고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건수의 증가를 넘어, 가해·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지능화·홍포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사소한 갈등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의존 심화’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 ↑)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6.4%), ‘신체 폭력’(14.6%), ‘사이버폭력’(7.8%)순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 소망한다

그렇다면, 2026년,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관심’으로,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1:29:300)’처럼, 평소 아이들이 보내는 언어적·행동적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인식의 전환’으로, ‘내 자녀를 무조건 감싸기보다,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시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아닌,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면,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가정에서 단호하게 교육해야 한다.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땐, 혼자 고민하기보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과 상담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최관중·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부동산 거래 절벽 심화에 하나둘 사라지는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도심 곳곳의 중개업소마다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국제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광주 4천423명, 전남 2천620명 등 총 7천4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205명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전체 거래량은 5천831건에서 4천731건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모든 유형에서 비슷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이상의 수치를 뛰어넘는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계약이 불발로 끝난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직접적인 거래 감소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사무실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중개사들의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지고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위축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중장기 물량도 제시했다. 예상을 벗어난 초고

강도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연간 누적 상승률이 8.7%에 이른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지방의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광주·전남지역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 속에 준공 후 악성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다.

새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마저 끊기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버틸수록 적자’라며 중개업소마다 비명이다.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마땅히 뚜렷한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되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후·폐업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기울였으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급등세인 수도권 집값을 제어하는 것 만큼 흑한기를 맞은 비수도권의 활력을 고민해야 한다. 공급을 대폭 늘리는 대책도 중요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 또한 핵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손해를 감수하며 버랑 끝에 선 중개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대불산단 안전체험장 재해 예방의 산실로 활용되길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해 크레인 중량물 이탈,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의 작업에 따른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해만 9월까지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도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서다.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지속해서 건의한 까닭이다. 체험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 사례를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까지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 규모로 고용부가 조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운영을 맡는다.

전남도는 지난해 대불산단 입주기업과 HD현대시멘트 협력사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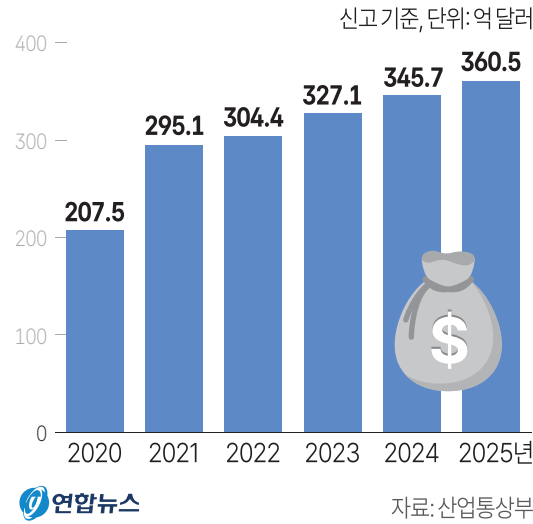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업체 스스로도 공정별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직접적 대응 체계를 두텁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는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안전체험장도 가상 상황을 몸으로 학습함으로써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 처방은 아닐 게다. 지자체와 기업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드디어 전남도가 2026년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안전체험교육장은 2028년 착공, 2031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속도를 내게 됐다. 대불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로 각종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선업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클린산업 단지로 거듭나야 한다. 안전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더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건조하는 선박들이 대형화, 고도화되는 추세로 그만큼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산재 사고를 없애는 것이 경쟁력의 척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FDI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 기준 FDI는 43% 증가한 360억5천만달러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7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5년 만에 73% 증가했다.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163% 증가한 179억5천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FDI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전이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190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의 투자는 97억7천만달러로 86.6%, 유럽연합(EU)의 투자는 69억2천만달러로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천만달러(-38.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